내 이야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제란
작품이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지표(指標)같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생관일 것입니다. 인생관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등에 대해 갖게 된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인생관은 개인에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의 친구나 이웃에게 들려 주고 싶다면 그저 줄거리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동화로 쓰고자 한다면 줄거리 외에 당신이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작품의 중심 사상인 '무엇'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인생관이 개인에게 삶의 지표가 되듯이 주제는 동화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등대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는 주제의식이라는 자양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작품이 곧 작가다."라는 말을 비춰 볼 때, 작가는 개개의 작품에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 주제의 저변에는 작가가 삶에서 통찰해 낸 주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1991년에 펴낸 내 첫 창작집 『영구랑 흑구랑』(개정판: 푸른책들, 2002)엔 표제작을 비롯하여 열다섯 편의 중·단편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동화들은 제각각 우정, 가족애, 이산가족의 슬픔, 어른들의 욕심에 상처 받는 아이들,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작집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의식은 '인간애'와 '소통'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애와 소통이라는 내 생각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마사코의 질문』(푸른책들, 2002) 의 작가 손연자는 초등 학생 시절,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 아픔, 원통함 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모든 과거의 역사는 현대사와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일제 강점기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

각이 동화를 쓰게 했답니다.

또 역사동화를 주로 쓰는 작가 강숙인은 『마지막 왕자』(푸른책들, 1999),『아, 호동 왕자』(푸른책들, 2000),『화랑 바도루』(푸른책들, 2005) 등의 역사동화와 고전을 재해석한 동화 『청아 청아 예쁜 청아』 (푸른책들, 2002) 를 통해 줄기차게 꿈을 좇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박윤규의 『버들붕어 하킴』 (현암사, 1998) 과 『산왕 부루』 (푸른책들, 2002) 도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 토종 생물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주제의식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황선미는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02)의 머리말에 "나는 소망을 간직한 삶과 자유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써 나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망을 간직한 삶과 자유'가 작가가 이 동화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인 셈입니다.

이렇듯 자기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은 모두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창작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주제를 담기 위해 걸맞는 그릇(이야기)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쓸 만한 씨앗(모티프)을 키워 주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뷔 초기의 내 동화들은 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없었기에 현실 속에서 동화의 모티프를 찾기가 어려웠기 대문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 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일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가 어울리는 자리에 들어앉는 것이지요.

『영구랑 흑구랑』에 실린 작품 중 집 떠난 누나의 모습을 선생님에게서 찾는 동수의 이야기를 그린 선생님의 「볼우물」, 어른들의 강퍅한 물꼬싸움 속에서도 우정을 지켜 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반디 초롱, 」 바보 칠뜨기를 통해 6.25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고자 한 「산딸기」 등이 주제가 앞선 경우입니다.

장편동화 『꽃바람』(푸른책들, 1999) 역시 뚜렷한 모티프 없이 가슴에 품고 있던 주제를 밑그림 삼아 허구로 만들어 낸 이야기입니다. 핏줄을 뛰어넘는 인간애를 그리기 위해 중심인물인 정빈이와 형 정호를 입양아로 설정했고, 실향민 할아버지와 비행청소년인 태식이를 주요 등장인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보듬는 정빈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만들어 낸 이야기에 개연성과 설득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억지로 이야기를 짜맞춘 듯한 작위적인 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쓸 만한 씨앗(모티프)을 키워 주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구랑 흑구랑』에 실린 작품 중 무엇이든 내기를 무척 좋아하는 친척 아이에게서 모티프를 얻은 「송아지 내기」, 나무 아래 수북이 쌓인 노란 은행잎 위에 서리가 내려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고 착상하게 된 「아침에 별이 든 찝」, 봉지를 쓰고 있는 과수원의 과일들을 보고 떠올린 「흰나비나무」, 집에 있던 수석이 계기가 된 「살아 있는 돌」 등이 모티프에서 출발한 동화들입니다. 장편동화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푸른책들, 2000) 역시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르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는 주제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